

헝가리 투란주의자의 한국 인식*

— 버라토시의 『새벽의 나라 한국』(1929)을 중심으로 —

이영미**

〈차 례〉

1. 머리말
2. 초머, 버라토시, 그리고 투란주의
3. 버라토시의 동아시아 여행과 관련 활동
4. 버라토시의 한국 여행 및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버라토시(Baráthosi Balogh Benedek, 1870~1945)는 20세기 전반 부다페스트에서 교사와 민족지학자, 저술가로 활동한 헝가리인이다. 헝가리에서 그는 19세기 후반에 발아하여 20세기 전반까지 유행한 투란주의(Turanism)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헝가리인족, 머저르족(Magyars)의 친족을 찾기 위하여 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매달렸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1907년과 1921년 두 번의 방문을 바탕으로 『새벽의 나라 한국(Korea, a hajnalpir országa)』(1929)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헝가리인이 한국을 단독으로 다룬 최초의 저술이지만, 인쇄소에서 극소량 출판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헝가리에서조차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버라토시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의 책 『새벽의 나라 한국』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가 투란주의자가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헝가리 민족의 동방기원설부터 헝가리 투란주의의 형성까지를 서술하여 다소 장황하지만, 투란주의가 그의 한국 인식에 명백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투란주의자이자 민족지학자로서 그의 동아시아 여행과 관련 활동을 다루었는데, 1차 자료가 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두 헝가리어이고 입수 자체가 쉽지 않아 해외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였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는 『새벽의 나라 한국』을 텍스트로 삼아 1907년 그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을 소개하고, 그가 동시대 다른 서양인들과 달리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책은 헝가리어 원본이 아닌 초머의 번역본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본 논문에서 이 책을 지칭할 때는 원제를 따라 『새벽의 나라 한국』이라고 쓰겠다. 필자는 본 논문이 가진 방법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가까이에 있었으나 학문적으로는 거의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소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바라토시, 헝가리, 초머, 투란주의, 『새벽의 나라 한국』, 긍정적 한국 인식

1. 머리말

바라토시(Baráthosi Balogh Benedek, 1870~1945)¹⁾는 20세기 전반 부다페스트에서 교사와 민족지학자, 저술가로 활동한 헝가리인이다. 헝가리에서 그는 19세기 후반에 발아하여 20세기 전반까지 유행한 투란주의(Turanism)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투란주의는 거칠게 설명하면 우랄 어족(사모예드어와 핀우그르어)과 알타이 어족(투르크어, 몽골어, 통구스어 등)의 친족 관계를 믿고, 양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투란 민족으로 명명하고, 범게르만주의나 범슬라브주의에 맞서 전 세계 모든 투란 민족의 협력 및 통일을 주장하는 범민족주의이다. 따라서 범투란주의(pan-Turanism)라고도 한다. 유럽에서는 핀우그르어 사용자가 많은 핀란드와 헝가리에서 호응을 얻었고, 아시아에서는 터키와 일본 등지에서 정당과 협회가 설립되는 등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다.

투란주의자 바라토시는 헝가리인 즉, 머저르족(Magyars)의 친족을 찾기 위하여 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천착하였다. 그는 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하는 통구스 계통 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였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헝가리인과 마찬가지로 투란 민족의 일원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차례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언어를 조사하고 민속품을 수집하였으며, 한국과

1) 헝가리인 인명은 한국인 인명과 마찬가지로 성 다음에 이름을 쓴다. 국제 사회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성을 뒤에 쓰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헝가리의 방식을 따랐다.

관련해서는 1907년과 1921년 두 번의 방문을 바탕으로 『새벽의 나라 한국(Korea, a hajnalpir országa)』(1929)을 집필하였다. 『새벽의 나라 한국』은 헝가리인이 한국을 단독으로 다룬 최초의 저술이지만, 인쇄소에서 극소량 출판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헝가리에서조차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이 책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헝가리의 한국학자이면서 현 주한헝가리대사인 초머(Csoma Mózes)이다. 초머는 2003년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여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를 계기로 번역본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발표할 수 있었다.²⁾

그러나 버라토시는 국내 학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역사학, 어문학, 민속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서양에서 생산된 한국 관계 기록을 분석하였지만, 그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구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논문은 신주철의 글인데, 그는 20세기 전후 한국인과 폴란드인의 상호 인식을 살핀 글에서 폴란드인 시에로세프스키(Wacław Sieroszewski, 1858~1945)와 버라토시를 비교하였다.³⁾ 시에로세프스키는 폴란드 문학사에서 ‘이국 취향 문학’이라 불리는 장르의 대표 작가이자 사하족(야쿠트족)을 조사한 민족지학자로, 1903년 한국을 여행한 후 『극동의 열쇠 한국(Korea: Klucz Dalekiego Wschodu)』(1905)을 출간하였다. 출신 국가의 지리적 위치, 민족지학자라는 경력, 한국 방문 시기 등에서 버라토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신주철은 시에로세프스키와 버라토시가 동시대의 유럽인들과는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다 민족지학자였고 타국의 지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의 주장과 해석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이미 재고되었거나 향후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 시에로세프스키의 한국 인식은 그리 남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안상훈은 그가 자기보다 앞선 서양

2) 버라토시 블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한말 외국인 기록 24〉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집문당, 2005, 7~10쪽.

3) 신주철, 『1900년 전후 한국(인)과 폴란드·헝가리(인)의 상대 인식』, 『동유럽발칸연구』 제2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1.

인들의 한국 인식을 모방한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담지자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영미는 그가 폴란드와 한국을 동일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음을 규명하였다.⁴⁾ 다음으로 두 사람이 경험한 타국의 지배는 상이하다. 시에로세프스키는 폴란드가 분할 통치를 받던 시대에 태어나 명백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베라토시는 75년의 삶을 통틀어 다른 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민족지학자가 된 배경과 맥락도 다르다. 시에로세프스키가 반러시아 운동을 하다가 베르호얀스크에 유배되는 바람에 사하족을 연구하게 되었다면,⁵⁾ 베라토시는 헝가리인들과 친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민족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민족지학자가 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베라토시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의 책 『새벽의 나라 한국』을 검토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그가 투란주의자가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헝가리 민족의 동방기원설부터 헝가리 투란주의의 형성까지를 서술하여 다소 장황하지만, 투란주의가 그의 한국 인식에 명백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투란주의자이자 민족지학자로서 그의 동아시아 여행과 관련 활동을 다루었는데, 1차 자료가 모두 헝가리어이고 입수 자체가 쉽지 않아 해외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였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는 『새벽의 나라 한국』을 텍스트로 삼아 1907년 그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을 소개하고, 그가 동시대 다른 서양인들과 달리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책은 헝가리어 원본이 아닌 초머의 번역본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지만,⁶⁾ 본 논문에서 이

4) 안상훈, 『오리엔탈리즘과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의 『한국』』, 『슬라브연구』 제28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이영미, 『『극동의 열쇠 한국』(1905)과 세로세프스키의 한국 인식』, 『한국학연구』 제4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5)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 지음, 김진영·안지영·권정임·안상훈·이장욱 옮김, 『코리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6쪽. 『극동의 열쇠 한국』의 번역본인 이 책에는 ‘러시아 학자 세로세프스키의 대한제국 견문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것이다.

6) 명지대학교 명지-LG 한국학자료관에 이 책의 사본이 있다. 워낙 희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방문을 통한 실물 확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책을 지칭할 때는 원제를 따라 『새벽의 나라 한국』이라고 쓰겠다. 필자는 본 논문이 가진 방법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가까이에 있었으나 학문적으로는 거의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소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초머, 베라토시, 그리고 투란주의

헝가리는 유럽 한가운데에 있지만 헝가리인들은 여타 유럽인들과 다른 계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대부분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반면, 헝가리어는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등과 함께 우랄 어족의 하위 분파인 핀우그르어파에 속하는 것이다. 헝가리인들의 선조는 본래 우랄 산맥 동쪽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넘어와 볼가강과 카마강 사이의 바시키리아에 정착하고, 서기전 500년경부터 짧게는 800년간, 길게는 1,200년간 이곳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오늘날 헝가리인들에게서는 핀우그르어파의 요소보다 투르크계, 이란계, 슬라브계, 게르만계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만, 이는 그들이 바시키리아에 거주하는 동안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민족과 접촉한 결과이다.

헝가리어와 헝가리 민족이 북유럽 및 러시아의 소수 민족과 친족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헝가리에서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헝가리인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을 유럽의 어느 민족이 아니라 동방 유목 기마 민족, 특히 훈족과 연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각각 훈족과 머저르족의 조상이 되었다거나 머저르족 연합의 우두머리가 훈족 마지막 군주의 후손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훈족은 아니지만 유목 기마 민족의 토템인 사슴과 맹금류를 자신의 민족 설화에 출연시켰다. 이는 헝가리인들이 예로부터 다양한 유목 기마 민족과 접촉하고 그들을 수용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들은 우랄 산맥 남동쪽 초원에 살 때 고대 이란계 종족인 알란족을 통하여 말[馬]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에는 여러 유목 기마 민족의 영향으로 반유목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세계관, 의식 구조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헝가리인들은 9세기 말 민족의 존립을 위하여 서로마 교회를 수용하고 유럽적 왕국을 세웠으며, 서유럽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최전방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영토도 광대한 중세 국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헝가리는 1526년 모하치 전투에서 패배하여 오스만투르크 권역, 동부 헝가리, 서부 헝가리로 분열되었고, 1699년 통일되기는 했으나 자력으로 일군 통일이 아니었으므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에 놓였다. 헝가리는 제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민족 문화의 퇴보를 막지도 못했다. 헝가리어는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가운데 점차 밀려났고, 귀족과 시민은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면서 전통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⁷⁾

헝가리인들의 민족적 일체감이 재형성된 것은 18세기 후반, 특히 1784년 황제 요제프 2세(II. József, 1780~1790)가 제국의 공용어를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꾼다는 칙령을 공포하면서부터이다. 헝가리인들은 헝가리 민족과 헝가리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데 위기감을 느껴 크게 반발하였고, 민족 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거의 전 계층이 합의하였다. 그들은 먼저 언어 개혁을 통하여 헝가리어를 공식 언어가 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욕구를 적극 반영한 문학, 예술,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헝가리 민족을 동방의 유목 기마 민족과 연관짓던 오랜 전통도 유행하였는데, 이는 과학적이나 학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생산된 낭만적 문학 작품들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⁸⁾

티베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코뢰시의 초머(Körösi Csoma Sándor, 1784~1842)는 이러한 환상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 초머는 지금은 루마니아의 땅인 트란실바니아에서 헝가리인으로 태어났다.⁹⁾ 1807년 아이우드

7) 이상의 내용은 이상협 저, 『헝가리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 김지영, 『헝가리 백과사전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서술: 1833~1930』, 『독일연구』 제47호, 한국독일학회, 2021, 42쪽.

9) 트란실바니아는 오늘날 루마니아의 중서부 분지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이다. 이 지역은 2세

[헝가리어 지명은 나기엔예드(Nagyenyed)]의 예비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헝가리인들의 고대사와 기원에 관한 논쟁에 참여하였고, 훗날 헝가리인들의 흔적을 찾는 학문적 여행을 떠나기로 동급생 2명과 함께 서약하였다. 졸업 후에는 독일에 건너가 괴팅겐대학에서 동양학과 다양한 언어를 섭렵하였으며, 헝가리 남부와 크로아티아에서 슬라브어를 공부한 후 1819년 가을 배낭과 지팡이만 들고 헝가리를 떠났다. 이후 여행 중에 만난 영국인들과의 인연으로 인도에서 티베트어 연구를 시작하여 영어-티베트어 사전과 문법서를 출간하였고, 1842년 자신의 오랜 소원을 실현하고자 다시 길을 떠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다르질링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묘비명은 “가난하고 외로운 한 헝가리인이 박수도 받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면서 헝가리 민족의 본국을 추적하였으나 결국은 그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했다”였다.¹⁰⁾

초머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버라토시가 그의 “열렬한 숭배자”였기 때문이다.¹¹⁾ 버라토시는 1870년 4월 4일 트란실바니아에서, 초머의 고향 코뢰시와 멀지 않은 레츠[헝가리어 지명은 리츠팔바(Lécfalva)]에서 태어났다. 그가 언제 초머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헝가리인들의 기원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란실바니아에서 초머의 명성을 고려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크고, 1884년 헝가리학술원이 초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책을 통하여 그의 전기와 연구를 접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초머의 생일은 3월 27일이지만 이 책에는 4월 4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¹²⁾ 우연

기 초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된 후 끝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특히 서쪽에 인접한 헝가리의 지배를 오래 받았다. 헝가리인들은 투르크계 유목민의 위협을 피하여 896년 이곳에 최초로 정착하였고, 헝가리 왕국을 세운 11세기부터 1526년 오스만투르크에 패할 때까지 이곳의 일부 또는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후 트란실바니아는 오스만투르크의 종주권 아래 헝가리 귀족이 다스리는 자치 공국이 되었다가 1711년 합스부르크 제국에 병합되었으며,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성립과 함께 다시 헝가리의 영토가 되었다(김정환,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부코비나에 대한 역사적 일고찰』, 『동유럽발칸연구』 제21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9, 237~238쪽).

10) Ernest Hetenyi, “Alexander Csoma de Koros, the Hungarian Bodhisattva,” *Bulletin of Tibetology* Vol. 9 No. 1, 1972, p. 38.

11) Imre Galambos, “A Hungarian Visitor Among the Ainu,” *Japanese Religions* Vol. 33 No. 1~2, 2009, p. 55.

12) Theodore Duka, *Life and Works of Alexander Csoma de Kőrös*, London: Trübner & Co., 1885,

히도 베라토시의 생일 역시 4월 4일이었다. 14세 소년이었던 그가 이 사실에 얼마나 고무되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베라토시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적다. 『새벽의 나라 한국』 번역자의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투루 세퀴에스크, 아이우드, 클루지나포카에서 공부하였다고 하며,¹³⁾ 아이우드에서는 초머의 모교인 베들렌 가보르 콜레기움(Bethlen Gábor Kollégium)을 졸업한 듯하다. 이후 그는 1892~1897년 베셀레니(Wesselényi) 가문의 가정 교사로 근무하였고, 1899년 트란실바니아를 떠나 수도 부다페스트로 이주하였다. 그는 공립 학교 교사로 일하는 가운데 방학 기간에는 유럽을 탐사하였으며, 헝가리와 동양의 문화적 및 언어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언어학과 민족지학을 공부하였다. 다만 초머처럼 대학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그의 언어 연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¹⁴⁾

초머와 더불어 베라토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투란주의이다. 투란주의는 머리말에서 대략 언급하였듯이 일련의 비교언어학 연구를 통하여 나온 개념이고, 관련 학자로는 여러 명이 있지만 핀란드의 카스트렌(Matthias A. Castrén, 1813~1852)과 독일의 뮐러(F. Max Müller, 1823~1900) 등이 있다. 카스트렌은 핀란드 민족 및 언어의 기원과 계통을 연구한 언어학자 겸 민족지학자로,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연구하여 양자의 친연 관계를 주장하였다. 뮐러는 그의 연구를 발전시켜 인도 유럽 어족과 셈 어족에 속하지 않는 아시아 계통 언어들을 모으고, 중앙아시아의 지명 ‘투란(Turan)’을 따서 ‘투란 제언어(Turanian languages)’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는 통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사모예드어, 핀어 등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을 북부 투란어, 타이어와 말레이어, 갠지스어, 로히트어, 문다어, 타밀어 등을 남부 투란어로 분류하였다.¹⁵⁾

pp. 1~2. 4월 4일은 초머가 세례를 받은 날이다.

13) Csoma Mózes, “Baráthosi Balogh Benedek a Csozon-Dinasztia Végnapjait élő Koreai-Félszigetről,” *Távol-keleti Tanulmányok*, Budapest: ELTE Távol-Keleti intézet, 2009/1, p. 114.

14) Imre Galambos, op. cit., p. 55.

카스트렌과 필러는 모두 헝가리어를 우랄 어족의 핀어로 분류하였지만, 헝가리인들은 오랫동안 믿어 온 헝가리와 동양의 연관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학문적으로 입증하려 한 사람은 밤베리(Vámbéry Ármin, 1832~1913)이다. 그는 과거 헝가리 왕국의 땅이었으며 지금은 슬로바키아의 남서부인 곳에서 가난하지만 어학적 재능이 탁월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오스만투르크로 건너가 자국의 외교 업무를 보조하고 언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베라토시가 태어나기 1년 전 헝가리인과 투르크인의 언어적 및 민족적 밀접성을 주장하여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주장은 헝가리어를 핀어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반박을 받았으나, 헝가리인들의 동방기원설을 믿던 민족주의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아 헝가리식 투란주의의 발아와 성장에 기여하였다.

베라토시는 밤베리와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헝가리식 투란주의가 형성되던 시절에 나고 자랐지만, 밤베리와 투란주의의 영향보다는 이미 오래 전 고인이 된 초머의 영향을 받아 낭만적 민족주의자로 성장하였다. 그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투란주의에 합류한 것은 부다페스트로 이주한 1899년 이후일 것이다. 다만 투란주의에의 합류가 민족주의에서 투란주의로의 사상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헝가리에서 투란주의는 민족주의에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새로운 외피였다는 점, 1910년 헝가리 투란주의자들이 아시아 연구 학원으로서 투란협회(Turáni Társaság)를 세우고 우랄-알타이 어족 이론에 근거하여 헝가리 민족과 투란 민족의 친족 관계를 연구한 점을 고려하면, 그는 전향이나 변신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투란주의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투란주의자 베라토시는 처음에는 투란 민족의 언어와 민족지를 조사하는데 집중할 뿐 저서 집필도 많이 하지 않았으나, 1920년대부터는 일본에 투란 민족동맹(ツラン民族同盟)을 창설하고 자비로 ‘베라토시 투란 총서(Baráthosi turáni könyvei)’(전18권)를 발간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15) Max Muller, *Lectures on the Science of Language, Delivered at the 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 in April, May, and June, 1861*, New York: Charles Scribner, 1862, pp. 397~398.

아마도 제1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헝가리는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왕국을 건설한 후 수십 년간 ‘행복한 평화의 시기’ 또는 ‘평화의 황금 시대’를 누렸으나, 패전 후 영토의 70%, 국민의 60%를 잃고 헝가리 민족 약 322만 명을 타민족이 지배하는 국가에 내주게 되었다.¹⁶⁾ 베라토시는 부다페스트에서 살았으므로 피지배 상태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향 트란실바니아가 루마니아의 땅이 되는 것과 헝가리 민족의 자부심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렇게 자국이 한순간에 작고 고립된 나라로 전락한 현실은 그에게 밖으로는 국외 친족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자국민들에게 투란주의를 교육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3. 베라토시의 동아시아 여행과 관련 활동

밤베리에게서 시작된 헝가리 투란주의가 헝가리 민족과 투르크족의 친연 관계에 주목하였다면, 베라토시는 알타이 어족의 또 다른 분파인 퉁구스어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 지역은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었다. 1903년 초 그는 아내와 함께 첫 번째 동아시아 여행을 떠났다. 먼저 일본에 가서 언어학 및 민족지학 조사를 수행한 후 한국, 만주, 시베리아를 차례로 살펴볼 생각이었다. 여행 경비는 직접 마련하되 후원을 받았다. 후원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그가 거의 무명의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대학이나 기관의 후원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적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베라토시 부부는 1903년 6월 일본에 도착하였다. 도쿄에 거주하면서 일본인 친구의 안내를 받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고, 후원자들에게 선물할 민속품을 수집할 목적으로 홋카이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러일

16) 김지영,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시대와 호르띠 시대의 헝가리 교육제도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10권 2호,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2008, 262쪽; 이상협 저, 같은 책, 233~243쪽.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매월 고국에서 보내 주던 돈(후원금)이 끊겼고, 일본인들로부터는 러시아 첩자 내지 수상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도쿄 일간지 『니로쿠신보(二六新報)』는 버라토시 부부가 1년 전 시베리아를 통과하여 일본에 왔으며, 버라토시는 독일 국민, 그의 아내는 러시아 국민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경찰의 가택 조사와 심문을 거쳐 해소되었다. 『니로쿠신보』는 그들의 일본 방문 목적을 알리는 글을 사과문과 함께 실었고, 얼마 후에는 그들의 초상화까지 실으면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소개하였다. 해당 기사는 아래와 같다. 이름과 관련해서는 베네데크(Benedek)의 영어식 표현인 베네딕트(Benedict)가 사용되었다.

〈1904년 2월 26일〉 헝가리 교수 베네딕트 씨는 헝가리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탐구한다. 그는 시베리아를 거쳐 작년 6월 이 나라에 왔고 일본어와 헝가리어의 비교언어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제국교육협회(Imperial Educational Society)의 모임에 초대되었다.

〈1904년 5월 4일〉 헝가리 고등학교 교사인 베네딕트 씨와 그의 아내, 그는 비교언어학과 민족지학 연구를 위하여 이 나라에 왔다. 그는 일본과 헝가리가 지적 유대를 맺는 데 매우 열정적이며, 일본인들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33세이고 그의 독일인 아내는 28세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가 풀린 후에도 여행은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버라토시가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전시 여권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지만,¹⁷⁾ 주중러시아대사는 한국 여행 이후의 일정에 필요한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귀국을 결정하였는데, 러시아 여권이 없었으므로 육

17) 러일전쟁기에는 일본 체류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 제약이 많았다. 한 스웨덴 기사는 1904년 연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한국을 여행하기 위하여 기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사업 관계가 있는 영국 면직물 회사 대표로 위장하였다(아손 그랩스트 지음, 김상열 옮김,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004, 21~25쪽).

로 대신 배편을 이용하여 유럽에 도착하였다.

귀국 후 버라토시는 첫 번째 저서 집필에 착수하여 1906년 『대일본(Dai Nippon)』(전3권)을 자비 출간하였다. 제1권은 여행, 제2권은 역사와 지리, 제3권은 문학을 다루었는데,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일본여행기인 제1권이였다. 신문사 겸 출판사였던 헝가리무역관보사(Magyar Kereskedelmi Közlöny)가 이 책의 상품성을 알아보고 그에게 정식 출간을 제의하였고, 제목을 『대일본, 놀라운 동양(Dai Nippon, Kelet Csodái)』으로 바꾸어 50,000부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버라토시는 약간의 명성을 얻었을 뿐 돈은 벌지 못했다. 출판사는 3층 건물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인 125,000페괴를 벌어들였으나, 그에게는 『대일본, 놀라운 동양』 외 2권에 대한 대가로 1,850페괴밖에 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미완성으로 끝난 동아시아 여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경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부당한 처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¹⁸⁾

1907년 초 다시 여행길에 오른 버라토시는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근거지로 삼아 아무르강 유역에 거주하는 퉁구스 민족들을 연구하였고, 190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여행 때 일본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에 가지 않았으며, 한국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시베리아로 돌아가 아무르강 유역 민족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귀국하였다. 또한 장티푸스에 걸려 중도에 귀국하고 말았지만 1909년에도 시베리아를 방문하였다.¹⁹⁾ 1903년부터 1909년 사이에 세 차례나 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그는 헝가리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젊은 민족지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1914년 초 버라토시는 16세 된 아들을 데리고 네 번째 동아시아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시베리아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방문하였는데, 헝가리국립박물관과 함부르크민족지학박물관, 베를린대학이 공동으로 맡긴 3년짜리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그가 민족지학자로

18) 버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조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74쪽.

19) 위의 책, 175쪽.

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여행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다. 그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시베리아로 갔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러시아는 적국 시민인 그를 8월 12일 하바로프스크에서 체포하였다. 그는 9월 말 러시아를 탈출하여 서둘러 귀국하였으며,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본업인 교사직에 몰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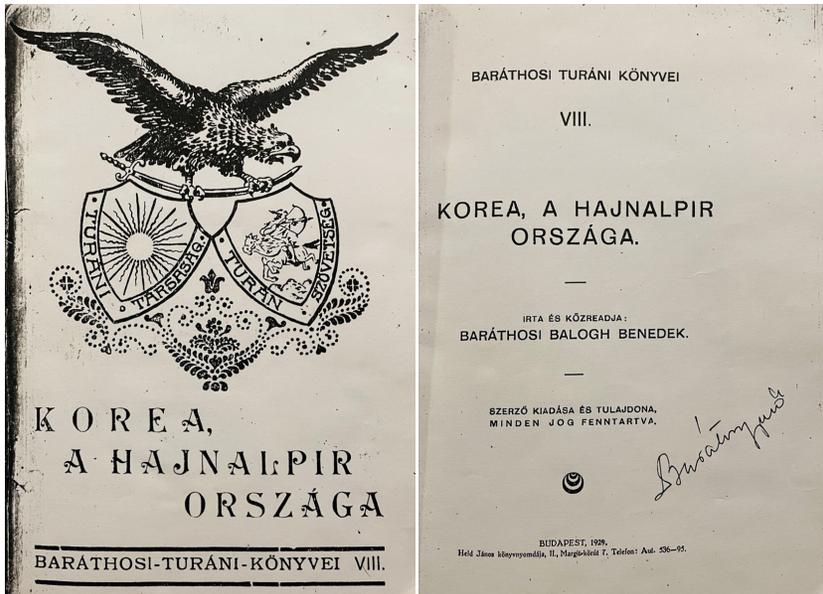
베라토시의 마지막 동아시아 방문은 1921년에 이루어졌다. 목적지는 일본이었고 여행 목적은 도쿄에 두고 온 수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1914년 러시아를 빠져나와 급히 귀국하느라 하바로프스크와 도쿄에 35점을 두고 왔던 것이다. 그는 수집품의 3분의 1은 일본행 뱃삿을 지원한 함부르크민족지학박물관에 제출하고, 3분의 1은 1914년 자금을 낸 민족학박물관(헝가리국립박물관의 부속 박물관)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21년 말 또는 이듬해 초 도쿄에서 투란민족동맹을 창설하였으며, 투란주의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 이마오카 준이치로(今岡十一郎, 1888~1973)와 함께 헝가리로 돌아갔다. 이마오카는 1914년 도쿄외국어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베라토시의 일본 여행 때 통역으로 동행한 인물인데, 베라토시의 도움으로 1931년까지 헝가리에 체류하면서 부다페스트대학을 졸업하고 헝가리에 일본을 소개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⁰⁾

1922년 봄 일본을 떠나 헝가리로 돌아온 후, 베라토시의 삶에서 동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민족지학자로서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대신 그는 부다페스트에 머무르면서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교육계에서 활동하였고 한때는 정계에서도 활동하였다. 1939년 4월 술회한 바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어 약 15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고 학문적 계획도 실천하지 못했다. 오로지 나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해야만 했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신세대를 교육하고 애국심을 길러 주는 것이 나의 의무였다.”²¹⁾

20) 이상의 내용은 Imre Galambos, op. cit. pp. 59~6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1)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79쪽.

투란주의는 이 시기 버라토시의 구국 활동을 지탱하는 사상적 배경이었다. 그는 “투란주의 운동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으로서” 투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²²⁾ 1927년부터 1942년까지 ‘버라토시 투란 총서’를 출간하여 자신이 투란 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민족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한민족도 포함되었다. 그는 일본 역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와 초기 일본학자인 영국인 애스턴(William G. Aston, 1841~1911)을 빌려 한국어와 일본어가 친족 관계에 있고 양자 모두 투란어에 속하며, 훈족이 대부분은 서북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일본과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면서 “한민족도 투란 민족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에 1907년과 1921년 한국 여행의 기억을 바탕으로 투란 총서 제8권 『새벽의 나라 한국』을 발표하였다.



[자료1] 『새벽의 나라 한국』 표지

22) Farkas Ildikó Mária, “A Magyar-Nippon Társaság,” *Japanológiai körkép*, Budapest: ELTE Eötvös Kiadó, 2007, pp. 89~90.

23) 버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4~15쪽.

번호	제목	원제	연도
1	천지창조에 대한 투란의 소설과 전설	Turáni regék és mondák a világ teremtéséről	1928
2	만주인 사이를 유랑하다	Bolyongások a mandsur népek között	1927
3	중국의 영혼	Khina lelke	1927
4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형제애	Szuomi-Eszti: Finn-Eszt testvérföldön	1927
5	우리 형제 투르크인의 간략한 역사	Vázlatok török testvéreink történetéből	1928
6	일본을 유랑하다	Japánföldi bolyongások	1928
7	수메르인, 스키타이인, 고대 투란인	Szumirok, szittyák, ősturánok	1929
8	새벽의 나라 한국	Korea, a hajnalpir országa	1929
9	중국의 바다에서	Khinai vizeken	1930
10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일본	Japán, a felkelő nap országa	1930
11	몽골과 부리아트	Mongolok-burjátok	1930
12	훈족이 세운 3대 세계 제국	A hunok három világirodalma	1930
13	남부 투란인: 인도, 티벳, 원아시아	Déli Turánok: Indiák, Tibet, Előázsia	1930
14	훈족의 후손, 파괴된 훈족 혈통	Hun utódok, elpusztult hunos véreink	1931
15	우리의 핀-우그르 혈족	Kisebb finn-ugor véreink	1931
16	바쉬키르인과 타타르인	Baskirok, tatárok	1932
17	헝가리의 참 역사: 합스부르크 시대의 헝가리인 암살	A magyar nemzet igazi története: A magyarság kigyilkolása a Habsburgok alatt	1937
18	우리의 투르크 혈족 불가리아인	Kisebb törökös véreink, Bolgárok	1942

[자료2] '버라토시 투란 총서' 목록

4. 버라토시의 한국 여행 및 인식

버라토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07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1904년 초 일본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오려고 했으나,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각종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귀국한 바 있다. 1907년 4월 초 그는 아무르강 유역의 퉁구스 민족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던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한국을 여행하였

저녁 무렵 러시아 국경 근처에 정박하여 러시아 군인들에게 줄 화강암을 내림

제2일 남쪽으로 항해하여 오후에 작은 한국인 마을 도착

50~60명의 건설 인력을 모집하려 했으나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함
주민들에게 밀가루와 보드카를 주고 뭇가가 든 가마니 20개를 받음

제3일 중국인들과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겨 배를 내주고 새벽 내내 산길을 걸음
40~50명의 승려가 기거하는 사찰에 도착하여 숙식

제4일 한국인 친구, 승려 2명, 하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서울로 출발
사찰에서 숙식

제5일 오후 3시 폭풍우를 만나 산중에서 길을 잃음
숯 굽는 사람들이 사는 폐광에서 숙식

제6일 전날 목으려 했던 사찰로 출발

이른 오후 10명의 승려가 기거하는 작은 사찰에 도착하여 숙식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일정은 여기까지이다. 이후 버라토시는 산길에서 점점 낮은 지대로 이동하여 서울로 가는 큰길에 다다랐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날에는 제법 큰 마을에 가서 한때 관료였던 늙은 기독교도의 집을 방문하였고, 다음날 밤 서울에 도착하여 며칠간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하였다. 서울에서 보내는 나흘째 아침 그는 제물포로 이동하여 부산행 선박을 탔으며, 부산에서 배를 갈아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다. 제물포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데까지 나흘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정리하면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세 번째 사찰에 도착하기까지 6일, 세 번째 사찰을 떠나 서울로 가는 데 〇일, 서울에 도착해서 3일, 제물포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가기까지 4일이 소요되었다. 한반도에 상륙하여 보낸 시간이 일단 열흘은 넘은 듯하다. 한편 서울에 도착하기 전날 더위와 모기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대목, 자신이 한국을 떠나고 몇 주 후 고종이 폐위되었다는 대목 등을 볼 때,²⁵⁾ 그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는 대

략 6월쯤으로 생각된다.

『새벽의 나라 한국』은 두 차례의 짧은 한국 여행 외에도 한국에 대한 독서와 공부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베라토시는 한국을 여행하기 전 헝가리에서 서양인들의 한국여행기를 읽었음을 밝히고, 그중에는 새겨들을 만한 좋은 충고들이 있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기록하였다.²⁶⁾ 그가 실명을 밝힌 유일한 저자 가슈파르(Gáspár Ferenc, 1861~1923)의 기록은 후자에 속하였다. 가슈파르는 빈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해군에 입대한 헝가리 군 의관이였다. 1890년 10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 사절단이 한국과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내한하였을 때 동행하였고, 1892년 600여 쪽 분량의 세계여행기를 출판함으로써 헝가리어로 한국을 소개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그의 기록은 단편적이고 부정적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무엇보다도 “더럽고 지저분한 나라”였다.²⁷⁾

가슈파르를 제외하면, 베라토시는 자신이 누구의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국에 대한 각종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각주도 참고 문헌 목록도 없다는 것이 『새벽의 나라 한국』의 특징인 셈이다. 다만 그가 책 곳곳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는 확실히 읽은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 초여름 한국 여행의 실제로 돌아가자. 베라토시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서양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한국인 안내자를 고용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도를 펴 놓고 여행 일정을 짜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한국인 친구와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저 여행지에서 접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모습에 신경만 쓰면 되었다.”²⁸⁾ 또한 그는 한국인들의 여행에 동행한 덕분에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사찰과 폐광에서 잠을 잤고 서울에 가서도 서양식 호텔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며, 개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음식을 한국인들이 주는

25)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28쪽과 153쪽.

26) 위의 책, 49쪽.

27) Csoma Mózes, op. cit., pp. 112~113.

28)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36쪽.

대로 먹었다. 한국인들이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되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양의 선물을 사 두었다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돈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베라토시의 한국 여행도 그렇지만 그의 한국 인식도 독특하였다. 그에게 한국 여행은 한국에 오기 전 접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는) 기록과 소문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새벽의 나라 한국』의 여러 대목에서 한국에 대한 기록과 소문을 소개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에 관한 서양인들의 통설에 대한 그의 반박이다.

나는 가끔 외국 여행가들이 한국인에 대해 잘못 쓴 기록을 볼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흰옷을 입는데 그래서 더 쉽게 때가 타고 항상 더러우며, 더러워진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고 한다. (중략) 더군다나 나는 양젓물에 삶은 빨래를 머리에 이고 빨래터로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 한국인들이 옷이 해질 때까지 빨지 않고 입고 다닌다는 이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의 아낙네들은 개울가에서 대체 무엇을 빨았던 것일까? (중략) 그 외에도 한국인들은 전혀 목욕을 하지 않으며 손발조차 씻지 않는다는 소문도 자주 들었다. 당연히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는다. (중략) 봄철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강에서 목욕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다.²⁹⁾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대개 전술한 『한국교회사』에서 시작되었지만, 열악한 위생 상태에 관해서는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의 유명한 책 『은둔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이 다루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목욕도 세탁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비누와 욕조,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물론 이는 직접적인 관찰 결과는 아니었다. “귀츨라프, 애덤스, 다른 사람들, 특히 일본

29)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49~51쪽.

인들이 이와 같은 개인적 결함을 기록하고 비누와 따뜻한 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것이었다.³⁰⁾

그리피스 이후 실제로 한국에 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개인 위생과 공중 보건은 물론, 한국의 많은 것에 관하여 악평한 사람도 있다. 가령 1880년대 말 주한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재직한 샤이에-롱(Charles Chaillé-Long, 1842~1917)은 “참을 수 없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썩은 양배추절임”이 세련된 미각과 맞지 않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기름을 발라 딱 달라붙은 머리카락에 나무통 같이 두리몽실한 한국 여성” 역시 이름다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불쾌한 언사를 내열하였다.³¹⁾ 타자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대신 보잘 것없는 것으로 일축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한 예이다. 또한 미국 상류층 가문의 청년으로서 1883년 말 한국을 방문한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의 경우를 살펴보면, 샤이에-롱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배타적이고 개인 및 개인성에 대한 인지가 없으며 “대부분의 조선인에게 가장 신나는 시간은 바로 식사 시간”이라고 단정하였다.³²⁾

그러나 샤이에-롱과 로웰의 한국 인식이 서양인들의 한국 인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한국에 온 샤이에-롱, 홍영식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로웰과 달리, 자발적으로 한국 여행을 선택한 서양인들은 타문화에 좀더 개방적이고 단어 선택도 신중한 편이었다. 이는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국가를 여행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경험한 결과였을 것이다.³³⁾ 영국인 새비지-랜더(A. Henry Savage-Landor, 1865~1924)

30)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p. 270.

31) 프레데릭 볼레스텍스 지음, 이항·김정연 옮김,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160쪽.

32) 퍼시벌 로웰 지음, 조정철 역,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52쪽.

33) 이러한 점에서 여행가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선교사들이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내한 당시 20대의 젊은이였다. 그들은 비서구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직업의 특성상 종교적·도덕적 우월감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단점을 찾기는 쉬웠으나 장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여행가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한 후 한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들이 자유로웠기 때문인지 한국인들에게도 엄격한 종교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우월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비서구

는 한국인들이 착한 성품을 가졌고 지적 능력도 좋은 편이라고 칭찬하였고,³⁴⁾ 독일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는 옛 모습을 잃은 도쿄와 베이징보다 서울에서 더 큰 매력을 느꼈다.³⁵⁾ 1904년 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인 그랩스트(William A. Grebst, 1875~1920)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불결하나 지배층은 흠잡을 데 없이 청결하다고 관찰하였으며, 여행이 끝난 후 “정말 아름다운 나라요 관심을 가지게 하는 민족”이라고 기록하였다.³⁶⁾ 물론 한국에 대하여 좋은 말만 썼다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새비지-랜더, 겐테, 그랩스트의 기록에도 한국과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내용이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여행기에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다.

반면 버라토시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로 책을 가득 채웠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들의 개인 위생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주거 공간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작은 집들과 근처의 아름다운 마당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54쪽)이라며 칭찬하였다. 신체적 조건과 얼굴 생김새에 관해서는 “한국인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못생겼다”(52쪽)는 소문에 반박하면서 체형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다고 주장하였으며, 성품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고 예의가 바르다”(55쪽)고 강조하였다. 한국인들이 게으르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일을 매우 좋아하지는 않으나 일단 시작하면 매우 부지런하고 능숙하게 일한다”(123쪽)고 변호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중국보다 여성 자살이 많다는 소문, 아이들이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소문, 집이 너무 작아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없다는 소문 등 한국과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이야기(53~54쪽)에 반박하였다. 그가 부인할 수 없었던 소문은 한국인들의 대식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덜 문명화된 민족의 표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본 대로 묘사하는 데서 끝냈다.³⁷⁾

와는 질적으로 다른 서구 문명 세계의 일원이라는 의식은 직종을 망라하고 거의 모든 서양인들에게서 나타났다.

34) A. H. 새비지-랜더, 신복룡·장우영 역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251~252쪽.

35) 지그프리트 겐테 지음, 권영경 옮김,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2007, 215쪽.

36) 아손 그랩스트 지음, 김상열 옮김, 같은 책, 366쪽.

베라토시가 접한 부정적인 기록과 소문은 전부 사실은 아니지만 전부 거짓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식은 결국 일반화의 오류를 감수한 선택의 문제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민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기로 선택하고 그리피스가 그들의 인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면, 베라토시는 자기보다 앞선 서양인들이 만들고 전파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한국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하였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근거와 논리는 빈약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서양인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제시한 관찰이나 분석 역시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전후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한 방법은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가끔은 자신의 출신 국가 또는 서구 세계 일반과 한국을 비교하기도 했지만, 동서양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 주고 서구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베라토시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으로서 헝가리를 자주 언급하였다. 몇 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궁이 위의 부뚜막은 지저분할 새가 없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 냄비, 밥그릇 등의 부엌 살림은 대부분이 놋쇠로 되어 있다. 그것들은 헝가리의 그릇들처럼 반들반들 윤이 난다. (39쪽)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다양한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헝가리 사람의 눈에는 헝가리에서처럼 머리 전체를 뒤로 빗어넘겨 길게 땀아 색색의 땀기를 드러낸 한국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마음에 들었다. (46쪽)

-한국의 마을 사람들은 여느 헝가리 마을에서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중략) 또한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하루종일 먹을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헝가리에서도 비슷하다. (48쪽)

37) 베라토시 블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13쪽.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한국인들의 식욕이 매우 왕성하다는 것을 이미 절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숯쟁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엄청난 양의 해초국, 수수, 삶은 콩을 먹었다. 나는 그들과 경쟁할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 한국인의 피부는 지저분한 누런 색이거나 더러운 주황색에 가깝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한국인의 피부색은 헝가리 얼펠디 지방에 사는 건강한 노동자의 구릿빛 피부색과 비슷하다. (51쪽)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데 꼭 헝가리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버라토시는 한국의 마을과 민가, 한국인들의 외모와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헝가리를 대등한 비교 대상으로 등장시켜 ‘헝가리인과 비슷하다’거나 ‘헝가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통하여 그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 나아가 동질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감정은 그가 한국인들을 투란 민족의 일원 즉, 헝가리 민족의 친족으로 여긴 데서 기인하였으리라고 분석된다.

버라토시는 한국을 설명할 때 헝가리 외 다른 나라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일본 인식이 한국 인식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그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그들의 반대편에 일본인들을 두었다.

- 아이들도 거칠고 소란스러운 일본 아이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얌전하다. 이에 반하여 일본 아이들은 응석을 많이 받아 주어 버릇이 없는 편이다. 한국 여성들도 일본 여성들에 비해 훨씬 평화적이다. 그래서 가족 내의 부부싸움은 아주 드물다. (47쪽)

- 한국인들은 귀족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냉소적이고 냉정하다. 일본인들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계층은 상공업 계층이다. (중략) 이들은 단 하나의 신밖에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다. (49쪽)

- 한민족은 매우 훌륭한 민족이다. (중략)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인들의 가식적인 예의 같은 것이 없다. 일본인들의 조금은 과장된 예의는 실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할 수 있다. (55쪽)

일본에 대한 버라토시의 부정적 평가는 동시대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일본

인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가 일본을 여러 번 방문하고 일본인들을 투란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는 의외이다. 그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모두 헝가리 민족의 친족으로 믿었는데, 왜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친근감이나 동질감을 보이지 않았을까?

베라토시의 비판은 단순히 일본인들의 품성이나 예의에 관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새벽의 나라 한국』의 10~11장에서 일본의 억압적이고 모순적인 한국 통치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심지어 11장의 제목은 ‘한국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였다.³⁸⁾ 그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단 며칠 방문하였을 뿐이지만 일제의 동화 정책과 경제적 착취의 실상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인들이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국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기는커녕 “다른 아시아 민족보다도 더 잔혹하게 다루는” 것, 일본이 한국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그 대가를 한국인들에게 거의 지불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자기네 나라에 살면서도 일본에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한국인들을 향하여 깊은 동정심을 표현하였으며,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³⁹⁾

베라토시의 일본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에 게 일본인들은 그저 괄목할 만한 근대화 성과를 이룩한 아시아 인종이 아니라 헝가리 민족의 친족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부정적인 일본 인식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후 한국인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다. 형성 시점은 1920년대 초로 추정된다. 1921~1922년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며칠간 한국도 여행하면서 피침략자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 침략자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가 제국주의 자체에 반대한 사람이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적

38) 원본과 번역본의 구성이 약간 다르다. ‘한국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는 번역본에서는 11장의 제목이지만 원본에서는 에필로그의 제목이다. 번역자가 원본의 10장 <일본의 권력>을 2개 장으로 나누고 에필로그의 제목을 11장의 제목으로 쓴 듯하다.

39)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조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60~162쪽.

어도 그는 서양인들이 비서양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동물처럼 취급”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었고,⁴⁰⁾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자유의 박탈, 경제적 착취, 일상적 학대 등을 거론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새벽의 나라 한국』을 번역한 초머는 베라토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한국과 헝가리의 정치적 상황을 비슷하게 여겼다고 썼다.⁴¹⁾ 이는 한국을 향한 베라토시의 애정이 동병상련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일 것인데, 그가 한국의 이모저모에서 헝가리를 떠올리고 한국을 수탈하는 일본을 비판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1867~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왕국 시대는 헝가리의 국가 위상이 가장 높았던 때였으므로, 1907년 그가 한국에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동질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왕국이 해체되고 헝가리가 많은 영토와 국민을 상실한 후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베라토시라는 인물과 그의 한국 여행 및 인식을 검토하였다. 그는 헝가리 민족의 동방기원설을 입증하려 한 초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나중에는 그 귀결로서 투란주의에 합류한 사람이었다. 그는 통구스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투란 민족의 일원이자 헝가리 민족의 친족이라고 믿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일본을 여행하였다. 1907년과 1921년 한국을 여행하였으나 여행기를 내지는 않았으며, 1929년에야 ‘베라토시 투란 총서’의 일환으로 『새벽의 나라 한국』을 발표하였다.

『새벽의 나라 한국』에서 베라토시는 그동안 많은 서구 기록에서 반복된

40) 베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61쪽.

41) 위의 책, 177쪽.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일축하고, 한국을 최대한 좋게 소개하되 헝가리를 비교 대상, 일본을 대조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한국과 헝가리가 비슷한 점이 많으며 한국을 향하여 친근감을 보였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의 성품과 성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한국 인식은 한국을 긍정적으로만 보았다는 점, 자국과 한국의 동질성을 강조하였다는 점, 일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서양인들의 그것과 차별성을 지닌다.

버라토시의 특징적인 한국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대략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 요인은 투란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호의이다. 보통의 서양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어느 모로 보나 타자였지만, 그에게 한국인들은 투란 민족의 일원이자 헝가리 민족의 친족으로서 친근감과 동질감의 대상이었다. 이는 『새벽의 나라 한국』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이 책을 펴내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헝가리 민족이 우랄-알타이 친족인 한민족을 제대로 알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⁴²⁾ 두 번째 요인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대이다. 그는 처음에는 일본을 그다지 나쁘게 보지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자 일본을 비판하는 입장이 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일본관이 심화될수록 긍정적인 한국관은 강화되었다. 마지막 요인은 가능성이 작기는 하지만 식민지 한국에서 느낀 동병상련이었다. 그는 독립 국가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을 보면서 세계대전 후 과거의 영광을 잃은 헝가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일제에 의하여 수탈당하는 한국의 농민들을 보면서 헝가리 농민들의 힘겨운 삶을 떠올렸다.⁴³⁾ 정리하면 그의 긍정적 한국 인식은 처음 한국을 방문한 1907년부터 『새벽의 나라 한국』을 발표한 1929년 사이에 전술한 세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버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조머 모세 역저, 같은 책, 15쪽.

43) 위의 책, 155쪽.

■ 참고문헌

< 저서 >

-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 지음, 김진영·안지영·권정임·안상훈·이장욱 옮김, 『코레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 버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지음, 초머 모세 역저, 『<한말 외국인 기록 24>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집문당, 2005.
- 아손 그렙스트 지음, 김상열 옮김,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004.
- 이상협 저, 『헝가리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지그프리트 겐테 지음, 권영경 옮김,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2007.
- 피셔 로웰 지음, 조경철 역,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 프레데릭 볼레스텍스 지음, 이향·김정연 옮김,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 A. H. 새비지-랜도어 지음, 신복룡·장우영 역주, 『<한말 외국인 기록 1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 Baráthosi Balogh Benedek, *Baráthosi Turáni Könyvei VIII: Korea, a hajnalpír orszaga*, Budapest: Szerzői magánkiadás, 1929.
- Max Muller, *Lectures on the Science of Language, Delivered at the Royal Institution of Great Britain in April, May, and June, 1861*, New York: Charles Scribner, 1862.
- Theodore Duka, *Life and Works of Alexander Csoma de Kőrös*, London: Trübner & Co., 1885.
-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 논문 >

- 김정환,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부코비나에 대한 역사적 일고찰』, 『동유럽발칸연구』 21-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9.
- 김지영,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시대와 호르찌 시대의 헝가리 교육제도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10권 2호,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2008.
- 김지영, 『헝가리 백과사전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서술: 1833~1930』, 『독일연구』 제47호, 한국독일사학회, 2021.
- 신주철, 『1900년 전후 한국(인)과 폴란드·헝가리(인)의 상대 인식』, 『동유럽발칸연구』 제2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1.
- 안상훈, 『오리엔탈리즘과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의 『한국』』, 『슬라브연구』 제28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 이영미, 『그리피스(1843~1928)의 한국 인식과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영미, 『'극동의 열쇠 한국'(1905)과 세로세프스키의 한국 인식』, 『한국학연구』 제4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Csoma Mózes, "Baráthosi Balogh Benedek a Csozon-Dinasztia Végnapjait élő Koreai-Félszigetről," *Távol-Keleti Tanulmányok*, Budapest: ELTE Távol-Keleti intézet, 2009/1.
- Ernest Hetenyi, "Alexander Csoma de Koros, the Hungarian Bodhisattva," *Bulletin of Tibetology* Vol.

9 No. 1, 1972.

Farkas Ildikó Mária, "A Magyar-Nippon Társaság," *Japanológiai körkép*, Budapest: ELTE Eötvös Kiadó, 2007.

Imre Galambos, "A Hungarian Visitor Among the Ainu," *Japanese Religions* Vol. 33 No. 1~2, 2009.

A Hungarian Turanist's View of Korea

– An Analysis of *Korea, a hajnalpir országa* (1929) –

Lee Yeong-Mi*

Baráthosi Balogh Benedek (1870~1945) was a Hungarian teacher, ethnographer, and writer in Budapes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He was known as a supporter of Turanism, which arose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prevail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e was mainly interested in the east of the Eurasian continent in order to find the relatives of the Hungarian people. Regarding Korea, he wrote a book titled “Korea, a hajnalpir országa (Korea, the Country of Dawn),” based on two visits in 1907 and 1921. Although it was the first book in Hungary to deal exclusively with Korea, it was not widely know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Hungary, as only a very small number of copies were published in the printing house.

This paper introduces the life of Baráthosi and analyzes his above-mentioned book.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that led him to become a Turanist. It describes from the theory of the Eastern origin of the Hungarian nation to the formation of Hungarian Turanism.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his travels to East Asia and related activities as a Turanist and ethnographer, depending on the research results of overseas scholars. The most important final chapter introduces his first trip to Korea in 1907, using his book as a text, and reveals that he viewed Korea very positively, unlikely other Westerners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of his time. While admitt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materials that have been close to us but rarely reviewed and urges further research.

In *Korea, a hajnalpir országa*, Baráthosi refuted the negative remarks that have been repeated in many Western writings. He introduced Korea as positively as possible, taking Hungary as the object of comparison and Japan as the object of contrast. His perception of Korea is unique in that he viewed Korea only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emphasized the homogeneity between Hungary and Korea, and perceived Japan in a negative way.

It seems that three factors may have influenced his perception of Korea. The first is the basic kindness that he could show to Korea as a Turanist. The second is his antipathy to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The third is his sympathy for colonial Korea. However, it is highly unlikely that he thought the situation in Hungary and Korea was the same.

Key words : Baráthosi Balogh Benedek, Hungary, Kőrösi Csoma Sándor, Turanism, *Korea, a hajnalpir országa*, positive view of Korea